Homo Migrans Vol.20 (May 2019): 94-142

■ 논문 ■

20세기 프랑스 우파의 정치문화 고찰
- 악시옹 프랑세즈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김 민 희

Ⅰ. 머리말

1898년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작은 민족주의 동맹(Ligue)인 악시옹 프랑세즈(L'Action Française)는 20세기 초 프랑스 우파 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 단체는 세계사의 유례없는 격변기를 프랑스적인 무언가를 통해 헤쳐나가려 하였고, 그 결론은 왕정주의를 표방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였다. 그들이 제시한 독특한 이정표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정치문화적 토양 속에서 움터 한 시대를 풍미하였으며, 이후 프랑스 민족주의의 향방을 좌우했다. 민족주의는 현대사의 중심 키워드이다. 반세기에 걸쳐 이를 영도한 악시옹 프랑세즈가 프랑스의 정치문화에 떨친 영향력은 그 사이 프랑스가 걸어온 시간 속의 굵직한 사건들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학계에서 악시옹 프랑세즈에 대한 연구는 몹시 풍부하지 못하다. 미국 역사가 유진 웨버(Eugen Weber)가 1962년 걸작

---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악시옹 프랑세즈: 두 절정기? - 악시옹 프랑세즈의 활동과 조직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2012)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악시옹 프랑세즈: 20세기 프랑스의 왕정주의와 반동』[1]을 출간했을 때,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2] 이후 1990년대의 몇몇 의미 있는 연구들[3]이 나타났고, 2000년대에 들어 시앙스포(Science Po)를 중심으로 일련의 새로운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성은 무엇보다 프랑스 우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체가 지닌 독특한 성격에서 기인한다. 막대한 영향력과 달리 그들의 힘은 수치나 통계로 드러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악시옹 프랑세즈는 중앙집권적 단체가 아니었기에 전국에 분포된 지부들 각각의 조직과 활동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들로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악시옹 프랑세즈에 대한 연구에는 기존의 작업들보다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역사에서 필자가 먼저 주목한 점은 이 단체가 반세기 내내 존속했다는 것이다. 악시옹 프랑세즈가 더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과시한 다른 민족주의 동맹들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 주의를 끄는 것은 이 단체가 지니고 있던 온갖 모순과 역설이다. 교황에게 파문당한 가톨릭의 투사, 왕에게 부인당한 왕정주의 단체, 애국주의와 반독일주의 속에 탄생해 내내 그 선봉장이었지만

1) Eugen Weber, *L'Action Française: Royalism and Reaction in Twentieth-century Fr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악시옹 프랑세즈의 전체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단행본인 이 책은 23년 후 프랑스에서 L'Action Française (Paris: Fayard, 1985)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2) Pierre Nora, "Les Deux Apogées de l'Action Française", *Annales: Économies, Sociétées, Civilisations*, 19e annéee, n° 1(1964), pp. 127-129. 여기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악시옹 프랑세즈 관계자들의 직┌간접적인 글에 대한 연구와 단체의 이데올로기적인 면이나 모라스라는 독특한 인물에 대한 연구이다. 노라는 웨버의 저서가 이를 벗어나 사료적 충실함을 지키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분석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서술했다고 극찬하였다.

3) 우파의 역사 전체를 다룬 미셸 비녹(Michel Winock)과 아리안 슈벨 다폴로니아(Ariane Chebel d'Appollonia)의 사례가 있고, 각각의 관심사와 시각에 따라 악시옹 프랑세즈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시도한 빅토르 응웬(Victor Nguyen), 자크 프레보타(Jacques Prévotat), 프랑수아 위그냉(François Huguenin) 등이 있다.

대독협력으로 끝을 맺은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과 상반되는 열광적이고 맹신적인 성향의 지지자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와 같이 도드라지는 특성들에 유의하여 악시옹 프랑세즈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라의 구분에 의거한 두 차례의 절정기와 마주친다. 첫 번째 절정기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전쟁 이전 급속히 성장했고, 전쟁 직후 절정기에 올랐다. 1925-1926년 단체는 연이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차츰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극적으로 전환된다. 비시정부가 악시옹 프랑세즈의 통합적 민족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단체는 두 번째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그렇지만 대독협력 및 파시즘과 연결되는 이 시기를 진정한 절정기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두 절정기, 그 사이의 간극, 그리고 두 번째 절정기에 제기되는 의문을 풀어가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역사 연구는 프랑스 현대사의 제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Ⅱ. 19세기 말 프랑스의 정치문화

20세기 공화국 속의 왕정주의 단체라는 기묘한 조합은 19세기 말 프랑스 정치의 격변의 산물이다.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정치 지형도가 시시각각 변화를 거듭한 가운데, 대혁명 이후 19세기 내내 우파들의 존재 근거였던 반동적 보수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하였다. 대중적 왕정주의는 불가능해 보였다. 세속화가 꾸준히 진행되며 교권주의 역시 힘을 잃어갔다.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은 허물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 감성이 요구되었다. 우파 세력은 생존을 위해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였다. 그들의 눈에 띈 것은 프랑스-프로이센전쟁 패배 이후 프랑스인 모두의 심중에 못처럼 박혀있던 반독일주의였다.

대혁명의 결실인 프랑스의 근대 민족주의는 혁명 이후 내내 그 계승자인 좌파 공화주의자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민족주의의 급격한 우경화가 시작된다. 브라이언 젠킨스

(Brian Jenkins)는 『프랑스 민족주의』에서 계급적인 시각으로 급진좌파 이데올로기의 우경화와 민족주의-우파 결합의 현실화를 통한 민족주의의 사상적 교차과정을 설명한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 불황 및 사회문제가 계급적 대립을 심화시키면서 여타 다른 이유들과 맞물려 좌파의 인도주의적인 민족주의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젠킨스는 그 대표적인 예로 도시 프티부르주아계급을 꼽았다.[4] 젠킨스에 따르면 부르주아적 관변공화국이었던 제3공화국은 이미 해체되고 있던 좌파의 인도주의적 민족주의 대신 반교권주의를 내세운 새로운 민족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관변공화국이 주도한 이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는 불랑제 사건과 드레퓌스 사건 동안에 프랑스 사회에 이념적인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이후 쇼비니즘, 제국주의, 군국주의와 결합하게 된다.[5]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랑제 사건에서 반독일주의의 복수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계급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극좌파에서 탄생해 중도좌파를 거쳐 우파를 포섭한 불랑제주의의 우경화는 19세기 프랑스 정치문화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불랑제주의의 개헌주의(révisionnisme)는 보나파르트주의가 프랑스에서 최초로 해냈던 모든 권위주의적 우파세력의 규합을 이끌어냈다.[6] 그것은 반독일주의라는 이름의 애국주의를 통해서였다. 대혁명 이래 전통적으로 좌파의 수식어였던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프랑스-프로이센전쟁을 기점으로 이 시기에 이르러 확연히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곧이어 터진 드레퓌스 사건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핵심 키워드는 반유대주의(anti-sémitisme)였다. 1881년 7월 29일 법, 일명 언론자유법(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통과 이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던 대중언론들은 드레퓌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유대주의가 결합된 애국적 민족주의를 전국으로 전파하였다. 반유대주의라는 결정적 무기를 장착한 우파 대중의 민족주의는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참여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중단체인

4) Brian Jenkins, 김인중┌마은지 역, 『프랑스 민족주의: 1789년 이후의 계급과 민족』 (파주: 나남, 2011), 164-165쪽 참고.

5) 마은지, 「프랑스 민족주의」, 『숭실사학』, 제20집(2007), 91쪽.

6) Jean-Christian Petitfils, *La Droite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3), p. 60.

민족주의 동맹체들의 폭발적 증가를 낳았다. 악시옹 프랑세즈를 포함한 동맹들은 기존의 정치적 도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우파-민족주의의 결합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완성되었다. 전쟁의 발발은 민족주의와 결합한 신생 이데올로기들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나타난 좌측 극단의 공산주의의 위협 역시 이를 촉진하였다. 간전기 프랑스 문단에는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젊은 극우파 문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구축했고, 또 다시 극우파 동맹들이 범람하였다. 간전기 우파들의 승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비시정부의 '민족혁명'으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프랑스 민족주의의 역사는 한 단체의 역사와 깊이 연관된다. 그것은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탄생해 1차 세계대전 동안 성장하고, 전쟁 직후 절정기에 올라 간전기 청년 우파들의 사상적 모태가 되었으며, 비시정부의 민족혁명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한 악시옹 프랑세즈다.

Ⅲ. 악시옹 프랑세즈의 창설과 조직화

1. 창설 배경

1898년 4월 8일 철학교사였던 공화주의 지식인 앙리 보주아(Henri Vaugeois)와 모리스 퓌조(Maurice Pujo)는 악시옹 프랑세즈 위원회(Comité d'Action française)라는 일종의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본래 애국주의적 동기로 드레퓌스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던 두 사람은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완전히 반드레퓌스 진영으로 돌아선다. 강경하고 과감한 노선을 지지하고 있던 그들 모임은 서른 살의 청년 샤를르 모라스(Charles Maurras)의 합류와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공식적인 출범이 성사된 것은 1899년 6월 20일이었다. 이때는 아직 공화주의자였던 보주아가 단체를 주도하던 시기였다. 출범과 동시에 열린 강연회에서 보주아는 공화국은 물론 혁명과의 단절도 없을

것이라 선언하였다. 또 "악시옹 프랑세즈는 강하지만 부드러울 것이다"[7] 라며 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주아와 모라스는 처음부터 그들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였다. 1899년 7월 10일 편집장을 맡은 보주아의 지휘 아래 「회보(Bulletin)」가 발행되었고, 1903년에는 회보가 격주간지 「악시옹 프랑세즈 리뷰(Revue de l'Action Française)」로 재탄생하였다. 단체의 초기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기관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점은 그 성향이 공화주의에서 반공화주의, 그것도 가장 상극인 왕정주의로 급변했다는 사실이다. 보주아가 쓴 사설의 제목이자 단체의 초기 정신을 표명한 '반동우선(Réaction d'Abord)'은 격주간지가 일간지가 되고 편집장이 모라스로 바뀌면서 '통합적 민족주의 기관지' 또는 '정치우선(Politique d'Abord)'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사상적 전향은 「악시옹 프랑세즈 리뷰」 창간에 참여한 인물들이 이전에는 특별히 왕정주의적 성향이나 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다양한 성향과 직업을 가진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애국주의자였다는 것뿐이다. 악시옹 프랑세즈가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는 사실은 동맹원들의 정체성 규명과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악시옹 프랑세즈 교육원(Institut d'Action Française)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루이 디미에(Louis Dimier)는 앙리대령에 대한 변호와 '애국적인 위조'의 정당화가 단체의 출발점이었고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8] 이들의 애국주의적 성향은 왕정주의로의 전향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아니 그것은 왕정주의로의 전향이라기보다 민족주의적 종합의 결과였다. 이러한 '개종'은 통합적 민족주의라는 모라스의 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나의 이론도 심지어는 일관된 전략도 없이', 보수주의자, 민족주의자, 가톨릭교회의 대표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던 반드레퓌스

7) Jacques Prévotat, *L'Action Française* (Paris: PUF, 2004), p. 11.

8) Louis Dimier, *Vingt Ans d'Action Française*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6), p. 9; René Rémond, *Les Droites en France* (Paris: Aubier, 1982), p. 170에서 재인용.

진영의 대표 프랑스조국동맹(Ligue de la Patrie Française)은 창설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분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9] 그들과는 달리 통합적 민족주의를 수혈한 악시옹 프랑세즈는 우파 민족주의의 새로운 주창자가 될 수 있었다.

2. 모라스와 모라스주의

악시옹 프랑세즈의 수장으로 반세기 가까이 프랑스 극우파의 사상적 지주로 군림했던 모라스는 1868년 4월 20일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마르티그(Martigues)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왕당파 세력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지방이었고, 유복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라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유년기의 보수주의적 배경은 청년 모라스의 사상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모라스는 17살 때 파리에 올라와 저널리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와 장 모레아스(Jean Moréas)와 교류하며 고전주의에 심취했고, 프레데릭 미스트랄(Frédéric Mistral)의 펠리브리지(Félibrige)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모라스의 문예적 취향은 그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취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반근대주의자이자 반혁명주의자로 세기말 데카당스에 깊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정치사상은 죠젭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루이 드 보날(Louis de Bonald)과 같은 반혁명 전통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반혁명 철학에서 공통되는 반개인주의와 사회유기체론 역시 답습된다. 전통주의 철학에서 왕정과 교회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위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신의 섭리의 표상이다. 불가지론자인 모라스의 경우 신의 섭리는 실증주의적 결론으로 대체되지만 근본적인 사고체계는 유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모라스는 대혁명의 결과물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 역시 거부한다. 모라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는 아나키즘과 동의어이고,

9) Ariane Chebel d'Appollonia, L'Etrême-droite en France: De Maurras à Le Pen (Bruxelles: Editions Complexe, 1996), p. 135; Rémond, *Les Droites en France*, p. 170.

질서의 반의어이다. 자유의 원리는 국가를 무질서의 독재에 내맡기고 혁명의 발발로 인도한다. 그것은 조국을 외국의 군대들에게 열어주는 것과 같다.[10]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도 전통과 사회를 해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라스에게 민주주의는 '수에 의한 정치체제'[11] 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기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선거의 이해관계들'은 '민족의 이해관계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12]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의 역기능은 프랑스 민족의 해체를 가져와 현 프랑스 사회의 혼란을 조장한 원인이다. 모라스는 전통과 문화유산의 집합체인 국가 혹은 민족을 가장 중요한 사회단위로 본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민족주의 이론가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과 당대 민족주의 지식인의 대부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였다.

모라스의 민족주의는 모든 반혁명적 전통들의 총합이었다. 명칭 그대로 'intégral'[13], 즉 전체적인, 총체적인, 통합적인 민족주의는 민족을 해체시키는 모든 민주주의적 기준을 버릴 것을 주장한다. 모라스에게 당면 과제는 '프랑스 민족'을 최우선에 두고 '프랑스 문명'을 수호하는 것, 대혁명의 폐해들을 철폐하고 '프랑스적인 것들'을 되살리는 것이다. '프랑스적인 것'이란 그리스・로마 문화를 계승하고 기독교 사상과 함께 발전해 나간 앙시앵 레짐의 프랑스 문명이다. 민족주의, 그것은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이며, 파괴세력들에 대항하는 절박한 모든 투쟁을 전제로 한다.[14] 이렇듯 모라스의 민족주의는 무엇보다도 프랑스에 이질적인 것에 의한 프랑스적 본질의 모든 변질에 대한 강력한 거부였다.[15]

---

10) Charles Maurras, *La Démocratie Religieuse*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1), p. 396.

11) *Ibid.*, p. 397.

12) Michel Winock, ed., *Histoire de l'Extrême Droite en France* (Paris: Seuil, 1993), p. 127.

13) "마치 적분(l'intégrale)이 대수함수의 모든 값의 총합을 산출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적 열망과 모든 민족적 목표를 충족시킨다"라는 뜻이다. 김용우, 「샤를르 모라스의 군주제적 민족주의와 프랑스 민족사회주의의 대두」, 『대구사학』, 86집(2007), 251쪽에서 재인용.

14) Winock, ed., *Histoire de l'Extrême Droite en France*, p. 130.

15) *Ibid.*

통합적 민족주의, 일명 '모라스주의'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철학사조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의 실증주의이다. 모라스는 콩트의 새로운 종교에 대한 견해에서 영감을 얻었고,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실증주의적 고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모라스는 콩트로부터 실증주의와 가톨릭주의의 연계[16]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민족이라는 유기체에서 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17] 이러한 방법론은 군주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이 모든 사조를 종합한 통합적 민족주의가 왕정주의로 흐른 것은 모라스의 말처럼 필연적인 결과일 런지도 모른다. "당신이 애국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왕정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18] 전통주의자들과는 달리 모라스의 왕정주의적 결론은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도달한 과학적인 개념으로, 프랑스 민족의 구심점으로서의 왕과 교회의 필요성을 추론한 논리적 결과물이다. 그에게 왕은 '선거의 이해관계들'에 좌우되는 의회민주주의와는 달리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민족의 이해관계들'을 우선해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군주정은 프랑스 민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사회는 "아래에는 자유, 위에는 권위"[19]라는 모라스의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이며 세습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이자 분권적인 프랑스 군주정"[20]으로의 회귀는 통합적 민족주의의 핵심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군주제적 민족주의'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

16) 이에 대한 분석은 Michael Sutton, *Nationalism, Positivism and Catholicism: The Politics of Charles Maurras and French Cathol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참고.

17) Winock, ed., *Histoire de l'Extrême Droite en France*, pp. 131-132.

18) Charles Maurras, "Lettre de M. Paul Bourget", *L'Enquête sur la Monarchie, Suivie de une Campagne Royaliste au 'Figaro', et Si le Coup de Force Est Possible*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5), p. 118.

19) Maurras, "Dictateur et Roi", *Ibid.*, pp. 446-463.

20) Charles Maurras, *Mes Idées Politiques* (Paris: Fayard, 1937), p. 301; 김용우, 「샤를르 모라스의 군주제적 민족주의와 프랑스 민족사회주의의 대두」, 252쪽에서 재인용.

모라스 이론의 요체는 저서 『군주정에 대한 조사(L'Enquête sur la Monarchie)』(1900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반자본주의를 통해 생디칼리슴(syndicalisme)과 같은 좌파적 통로로 이론을 발전시키려 시도하였다.[21] 이는 노동계 포용을 위한 대중 지향적 전략이기도 하였다. 반유대주의에서도 대중 지향성은 두드러진다. 반유대주의는 대중에의 호소는 물론 악시옹 프랑세즈에 동조한 지식인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또한 통합적 민족주의의 행동주의에 매료되었다. 통합적 민족주의의 최종적 목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정치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은 용인된다. 통합적 민족주의는 공화정 체제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공화정 체제 안에서 논의되던 이전의 프랑스 민족주의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모라스와 모라스주의 그 자체가 지니고 있던 힘, 우파 민족주의에서 지니게 된 위상이 악시옹 프랑세즈의 비상을 이끌었고 그들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3. 전략과 실행

왕정주의 단체로 변모한 악시옹 프랑세즈는 통합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사상적 점거와 대중선동 전략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다. 통합적 민족주의는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와 정면충돌하였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적들이 만들어 놓은 전선에 뛰어들었고, 유사한 수단으로 그들과 맞섰다. 반혁명 이론가들의 텍스트로 특별란을 꾸민 「악시옹 프랑세즈 리뷰」 창간호 발행이 그 시작이었다. 동시에 모라스는 공화주의적 역사서술에 공격을 가하였다. 공화주의적 역사개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목표였다.[22] 자칭 "로마인이자 인문주의자"였던[23] 모라스는 에르네스트 라비스(Ernest Lavisse)로 대표되는 공화주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21)모라스의 반자유주의와 생디칼리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김용우, 『호모 파시스투스』 (서울: 책세상, 2005), 제2부(프랑스 파시즘) 제2장('1913년의 파시즘': 군주제적 민족주의에서 파시즘으로') 참고.

22)Prévotat, *L'Action Française,* p. 20.

23)Maurras, *La Démocratie Religieuse*, p. 26.

프랑스 문명의 독일 연관설에 맞서 프랑스 문명의 로마 기원설로 반박하였다. 디미에를 필두로 한 악시옹 프랑세즈 측은 역사학자 퓌스텔 드 쿨랑주(Numa Denys Fustel de Coulanges)를 라비스의 대항마로 내세워 역사학논쟁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학생들과 전국왕당파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Camelots du Roi) 소속의 청년들(이하 '카믈로들'[24])이 주도한 공화파 교수들의 강의에서의 난동, 언론을 이용한 항의 캠페인과 논쟁은 물론 죽은 역사학자가 왕정주의자들과 얽혀 벌어진 스캔들은 선동적 뒷받침에 힘입어 아직 무명에 가까웠던 단체의 선전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언론활동은 1908년 격주간지가 일간지로 바뀌면서부터 더욱 활발해졌다. 「악시옹 프랑세즈. 통합적 민족주의 기관지(L'Action Française. Organe du Nationalisme Intégral)」는 1908년 3월 21일부터 1944년 8월 24일까지 약 36년간 발행되었으며, 통합적 민족주의를 전파한 일등 공신이었다. 편집장 모라스는 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까지 이른 우파 지식인의 상징이었고, 역대 편집위원들의 이름 역시 화려하였다. 앙드레 지드나 로제 마르탱 뒤 가르(Roger Martin du Gard)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악시옹 프랑세즈」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호감은 그대로 단체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으로 이어졌다. 많은 지식인들이 악시옹 프랑세즈와 연관되었다. 지드, 프루스트, 셀린 같은 당대의 대문호와 지식인들, 드골과 같은 대정치가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악시옹 프랑세즈의 영향을 받고 자란 라울 지라르데(Raoul Girardet), 필리프 아리에스(Philippe Ariès) 같은 역사가들이 있었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지적인 명성은 진정한 대중성과는 반비례하는 것이었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인쇄 부수는 시기에 따라 5만

24) 그 의미는 '왕의 하수인들'이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행동력을 상징하는 인적 조직으로 전국 각지 동맹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들의 업무 중 하나는 단체 기관지를 판매하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상징적 이미지는 신문팔이 청년들이 되었다.

부에서 10만 부 사이를 오갔다.[25] 동시대 대중 일간지들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였다.[26] 이와 같이 인쇄나 판매 부수와 같은 직접적인 통계로는 측정되지 않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대중적 영향력은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펼쳐졌다. 단체는 「악시옹 프랑세즈」, 「악시옹 프랑세즈 뒤 디망슈(L'Action Française du Dimanche)」, 잡지인 「사상과 책 비평 리뷰(Revue Critique des Idées et des Livres)」같은 직속 언론과 더불어 자크 뱅빌(Jacques Bainville)의 문예잡지 「르뷔 위니베르셀(Revue Universelle)」, 「캉디드(Candide)」, 「즈 쉬 파르투(Je Suis Partout)」 같이 단체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망 있는 매체를 거느리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파리와 지방을 막론한 상당수 우파 언론과 협력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27] 지적인 명성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던 「악시옹 프랑세즈」의 기사나 사설은 협력 언론지를 통해 재인용되고 다른 언론들을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공화주의와 좌파 언론들을 공격했고 그들에게 공격받기도 하였다. 그것은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커뮤니케이션[28]으로 점철된 악시옹 프랑세즈는 역사는 위기와의 긴 외줄타기였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대중선동의 감성적 수단으로 반유대주의를 활용하였는데,[29] 이는 그들의 일간지와 저작물 등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주요 선동자인 도데의 반유대주의적 소설이 일간지에 연재되었고 1906년 9월부터는 대대적인 반유대주의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체의 대중 공략은 언론과 산하기관들의 보조를 받아

25) Ralph Schor, L'Opinion Française et les Étrangers en France 1919-1939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85), p. 11.

26) 소위 4대 대중일간지 「르 프티 파리지엥(Le Petit Parisien)」,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 「르 주르날(Le Journal)」, 「르 마탱(Le Matin)」의 판매부수는 단계적으로 60만부~1백 40만부 정도였다. Christophe Charle, *Le Siècle de la Presse,* 1830-1939 (Paris: Seuil, 2004), pp. 156-157.

27) Weber, *L'Action Franàçaise*, p. 215.

28) Prévotat, *L'Action Française*, p. 121.

29) 악시옹 프랑세즈 초기의 반유대주의 활용에 대해서는 Laurent Joly, "Les Débuts de l'Action Française(1899-1914) ou l'Élaboration d'un Nationalisme Antisémite", *Revue Historique*, n° 639(2006) 참고.

이루어졌다. 1905년 악시옹 프랑세즈 동맹(Ligue d'Action Française)이 설립되었다. 거리 활동의 중심인 이 조직은 신입회원 모집과 선전에 힘썼다. 동맹 내에는 부녀회(Dames d'Action Française et Jeunes Filles Royalistes)를 비롯해 전국대학생연합(Fédération Nationale des Étudiants d'Action Française)이 존재하였다. 전국대학생연합은 기존의 왕당파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민족주의, 가톨릭, 공화주의에서 애국주의로 전향해가고 있던 좌파 세력으로부터 청년 인력을 수급하였고, "나라의 지적 청년 엘리트를 집결시킨다"[30]는 모라스의 의도에 따라 우파 청년 엘리트 양성소 역할을 하였다. 학생회원들은 악시옹 프랑세즈 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사상교육을 받았고, 자체적인 기관지 「에튀디앙 프랑세(L'Étudiants Français)」를 발행하며 미래의 신왕정주의자로 성장해나갔다. 이들은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외국 또는 유대계나 악시옹 프랑세즈에게 지목당한 교수들의 강의에서 난동 피우기,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학생들과의 싸움, 잔다르크 축제행렬 참여 등이었다.

전국대학생연합의 거리 점거는 1908년 11월 16일 전국왕당파연맹이 조직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전국왕당파연맹의 카믈로들은 기관지들 판매 외에도 모조직과 연관된 각종 시위의 최전선에서 행동대원으로 나섰고, 그들의 행적은 「악시옹 프랑세즈」를 위시한 우파 언론을 통해 전파되었다. 1908년 아메데 탈라마(Amédée Thalamas) 사건, 1911년 앙리 베른스탱(Henry Bernstein) 사건 등을 거치며 입증된 그들의 행동력은 반정부주의적·민족주의적 사고를 지닌 젊은이들을 매혹시켰다. 이와 같이 악시옹 프랑세즈의 초기 전략은 '사상'과 '대중'이라는 두 키워드에 맞춰져 있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반유대주의'를 활용하면서, 여러 산하단체를 만들어 양방향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치우선'을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단체의 조직 활동은 육성┌기획┌선전┌집행의 역할을 맡은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활용해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30) APP B/A 1343, rapport du 20 novembre 1912, et AF, compte rendu sur le congrès; Rosemonde Sanson, "Les Jeunesses d'Action Française avant la Grande Guerre", Michel Leymarie, Jacque Prévotat, eds., *L'Action Française: Culture, Société, Politique* (Villeneuve d'Ascq: Septentrion, 2008), p. 208에서 재인용.

단체는 사상을 전파하고 대중성에 대한 일말의 실마리를 확보하였으며 지성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성공하였다.

Ⅳ. 악시옹 프랑세즈의 두 절정기

1. 첫 번째 절정기

자신들의 기관지와 교육원을 통한 이론적·사상적 공세와 카믈로들과 같은 인적 조직을 통한 행동력으로 조금씩 세간에 이름을 알려가고 있던 악시옹 프랑세즈는 일간지 「악시옹 프랑세즈」가 창간된 1908년 전후의 시기부터 점차 도약을 시작하였다. 내부적인 비상의 원동력은 레옹 도데(Léon Daudet)의 영입이었다.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의 장남인 도데는 이제 막 명성을 쌓기 시작한 문인이었다. 그는 입단하자마자 일간지 창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고, 뛰어난 연설 능력, 특히 반유대주의적 감수성을 활용하는 대중적인 선동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웨버에 따르면 외양도 표현법도 라블레풍인 도데는 열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의 달인으로 모라스를 완성시켰다.[31] 얼마 지나지 않아 도데는 모라스와 함께 악시옹 프랑세즈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다.

외부적인 요인들도 악시옹 프랑세즈의 상승 기류를 도왔다. 먼저 공화주의적 민족주의 단체였던 프랑스조국동맹이 힘을 상실했고 애국자동맹(Ligue des patriotes)이 해체되었다. 우파 내 경쟁자들의 잇따라 몰락과 더불어 그들이 추구하던 공화주의적 민족주의는 막다른 벽에 몰렸다. 이미 힘을 상실한 왕당파들 역시 비교적 쉽게 포섭되었다. 이에 더하여 1906년의 '재산명세서(Inventaires)' 사건은 단체의 양적 성장의 결정적 계기였다. 1905년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고, 이듬해 교회의 재산이 국가로 편입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프랑스 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은 막막한 현실을 타파할 힘과 열의가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악시옹 프랑세즈는 자신들의 투쟁과 겸해 모더니즘의 혁신들로 인해

31) Weber, *L'Action Française*, p. 65.

위협받고 있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투사를 자처하였다. 모더니즘의 이론적 위험성에 반대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러한 태도의 표명은 「악시옹 프랑세즈」의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32] 프랑스 내 가톨릭 신도들은 새로운 수호자에게 매료되었고, 가톨릭 지도자들 역시 상당수가 동요하였다. 일간지 구독자와 단체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전쟁 전의 분위기, 특히 반독일적 민족주의의 고조는 악시옹 프랑세즈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큰 성장의 동력이었다. 단체는 '민족'을 최우선에 둔다는 그들의 기치대로 신성동맹을 위해 반체제주의를 잠시 내려놓았다. 그들의 일간지는 신성동맹을 지지하면서부터 공화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잠시 멈추었고, 3년 병역법 캠페인을 통해 민족주의의 열기를 고취하는데 힘썼다. 전쟁이 시작되자 악시옹 프랑세즈는 바로 어제까지는 그들의 적장이었던 공화국의 총리 클레망소에게 프랑스를 위한 무조건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결단은 전쟁 직전 악시옹 프랑세즈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났을 때 악시옹 프랑세즈가 거둔 성공은 어마어마하였다. 프레보타는 그들의 정신적 영향력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주의가 미친 영향력과 거의 대등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33]

2. 두 위기, 그리고 모순과 역설

첫 번째 절정기 이후 위기는 조용히 다가왔고, 두 방면에서 연이어 단체를 동요시켰다. 먼저 조르주 발루아(Georges Valois)와의 단절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혁명적 생디칼리스트인 발루아는 1907년 모라스의 권유로 단체에 합류하였다. 모라스가 그를 영입한 것은 한편으로는 노동계 세력과 연계해보려는 의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에 따른 사상적 모색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발루아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지원 아래 생디칼리슴과 통합적 민족주의를 접목하는 작업에 매진했고, 프루동 서클(Cercle Proudhon)과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루아가 점차

32) Prévotat, L'Action Française, p. 26. 악시옹 프랑세즈와 가톨릭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Jacques Prévotat, *Les Catholiques et l'Action Française, Histoire d'une Condamnation*, 1899-1939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2001).

33) Prévotat, *L'Action Française*, p. 3.

파시즘으로 기울며 1925년 11월 11일 페소(Le Faisceau) 창단과 같은 독립적인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양자는 충돌하였다. “프롤레타리아의 심장을 지닌 발루아와 부르주아의 피를 지닌 모라스”[34]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단체 내 가장 열정적인 투사들 200여명이 이적하였다. 이탈자들은 사상과 이념의 문제를 떠나 그들이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던 단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35] 단체의 경제 분야의 책임자로 노동계 및 생디칼리슴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발루아의 공백은 매우 컸다. 단체에는 경제 전문가가 드물었고, 모라스의 경제이론은 소극적인 코포라티즘(Corporatisme)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발루아와의 결별과 함께 프루동 서클에서 논의되던 생각들은 단체 내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두 번째 위기는 보다 급박하고 충격적이었다. 위기가 발발한 곳은 지지자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가톨릭 쪽이었다. 이미 조짐은 있었다. 악시옹 프랑세즈와 교황청의 암묵적인 연합은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로마의 반대파(민주주의자, 시용주의자, 자유주의자, 인단교설 80개조를 반대하는 사람들)가 곧 「악시옹 프랑세즈」의 반대파였다.[36] 그러나 간전기에 접어들며 두 세력의 이해관계는 달라졌다. 교황청과 공화국은 1921년 관계를 재개하였다. 비오 11세는 ‘과도한 민족주의’에 반대했고, 화해하고 재건된 하나의 유럽이라는 궤도가 조장되길 원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에 호의적이었던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의 노력을 지지하였다.[37] 악시옹 프랑세즈는 그 반대편에 있었다. 프랑스 내 가톨릭들에게 미치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 역시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1926년 여름을 시작으로 불길한 기류가 요동쳤고, 그해 12월 20일 모라스의 저작물과 「악시옹 프랑세즈」는 공식적으로 파문당하였다.

---

34)Nora, “Les Deux Apogées de l’Action Française”, p. 133.

35)Guillaume Gros, “Les Jeunes et l’Action Française(1914-1939)”, Michel Leymarie, Jacque Prévotat, eds., *L’Action Française: Culture, Société, Politique*, pp. 225-226.

36)Prévotat, *L’Action française*, p. 27.

37)*Ibid.*, pp. 59-60.

두 위기는 이후 악시옹 프랑세즈를 모순과 역설의 단체로 만든 출발점이었다. 두 차례의 단절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생디칼리슴 세력, 그리고 가톨릭 세력과의 각각의 연대는 애초부터 불완전한 조합이었기 때문이다. 왕당파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왕정주의 단체였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은 왕정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덕분이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그들의 지지자는 왕정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상 역시 모호하였다. 장-크리스티앙 프티피스(Jean-Christian Petitfils)는 모라스는 가능했다면 모든 유대적(judaïque)・성서적 준거들을 없앤 가톨릭교, 즉 기독교(Christianisme) 없는 가톨릭(Catholicisme)을 원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38] 같은 맥락으로 통합적 민족주의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왕정주의는 '왕 없는 왕정주의'라는 모순을 가능케 하였다. 방치된 불안요소들은 두 위기를 불러왔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단체 지도부의 대처는 결과론적인 아쉬움을 남긴다. 그렇지만 보다 시야를 넓히면 악시옹 프랑세즈로부터 배태된 씨앗들이 또 다른 화원에서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시옹 프랑세즈가 심어놓은 열정은 가톨릭 사회주의 세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시용주의(Sillonisme)를 주창한 마크 상니예(Marc Sangnier)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의 출현을 가져왔다.[39] 이를 필두로 가톨릭계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행동주의 세력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이들은 단체의 적이 되었지만, 악시옹 프랑세즈로부터 자극받아 탄생한 그들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악시옹 프랑세즈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3. 두 번째 절정기?

간전기에 들어 악시옹 프랑세즈는 기존의 반의회주의의 철칙을 저버렸다. 동맹원들은 선거에 출마했고, 도데는 1919년 파리에서 당선되었다. 공화국 수뇌부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악시옹 프랑세즈의 지도부에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비난이 좌파

38) Petitfils, *La Droite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 71.

3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ugues Petit, *L'Église, le Sillon et l'Action Française* (Paris: Nouvelles Éditions Latines, 1998).

언론에서 일기 시작하였다.[40] 공화국과 반동단체라는 이 이상한 연대에는 왕당파, 가톨릭, 노동계의 경우와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간전기 최대 이슈였던 패전처리 논쟁에서 대독강경주의를 내세운 클레망소와 함께하였다. 그 반대편에는 독-프 화합,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질서와 평화의 회복을 주장한 영-미 연합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브리앙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악시옹 프랑세즈는 더이상 무대의 주역이 아니었다. 가장 큰 원인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적응과 맞물린 보수성의 강화 때문이다. 악시옹 프랑세즈 동맹 수뇌부 젊은이들의 연이은 이탈[41]은 남아 있는 단체 지도부의 노화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청년들의 탈퇴는 비단 단체의 보수성 강화에 따른 내부적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전야의 국제적인 위기 고조와 1930년대의 세계 경제 불황, 그리고 사회 다방면에 깊숙이 침투한 변화는 프랑스 사회에 전면적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장 투샤르(Jean Touchard)가 말한 일명 '1930년대의 정신'[42]이 출현하였다. 샤를르 페기(Charles Péguy), 에르네스트 피샤리(Ernest Psichari), 모라스 등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젊은 우파 민족주의 작가들이 1930년대의 정신을 형성하였다. 그 중 한 명인 다니엘 롭스(Daniel-Rops)는 1932년 12월 "우리가 현재 전환의 시점에 서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들의 현재를 규정하였다.[43] 이들 일명 '비순응주의자들(les Non-conformistes)' 대부분은 사회적

40) Weber, *L'Action Française*, p. 160.

41) 베르나르 드 브쟁(Bernard de Vesins), 1930년 장 드 파브레그(Jean de Fabrègues), 1932년 조르주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에 이어, 1935년에는 외젠 들롱클(Eugène Deloncle), 장 필리올(Jean Filliol), 자크 코레즈(Jacques Corrèze) 등이 뒤따랐다. 후자그룹은 이후 혁명민족당(Parti National Révolutionnaire)과 카굴(Cagoule)이라는 극우파 과격행동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42) Jean Touchard, Pierre Guiral, Jacques Kayser, René Rémond, "L'Esprit des Années 1930: Une Tentative de Renouvellement de la Pensée Politique Française", *Tendances Politiques de la Vie Française depuis 1789* (Paris: Hachette, 1960) 참고.

43) Jean-Louis Loubet del Bayle, *Les Non-conformistes des Années 30: Une Tentative de Renouvellement de la Pensée Politique Française* (Paris: Seuil, 2001), p. 14.

위기에 부응해 정치색을 띄어 갔다. 그들은 사회 전반의 위기를 서구 문명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인식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명 혹은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크게 에스프리(Esprit), 새로운 질서(Ordre Nouveau), 청년우파(Jeune Droite)로 삼분할 수 있는 비순응주의 그룹 가운데 청년우파는 대부분 모라스의 제자들이었고, 새로운 질서 역시 모라스의 영향력이 명백했으며,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의 영향을 받은 에스프리 역시 모라스와의 연관성을 논할 수 있다. 이 청년들은 소책자의 발행을 통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대안적 경제시스템을 찾는 동시에 우파와 좌파 사이의 화해를 모색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의 정신 속에는 "신자유주의적 조류와 신전통주의적 조류 사이의 수렴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44] 그리고 이는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

파시즘의 영향은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극우 민족주의 동맹들이 2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였다. 카믈로들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특히 1928년에 창설된 불의 십자가단(L'Association des Croix-de-Feu)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 시기 극우파 동맹들의 대중화는 재향군인, 소상인, 실업가들의 박탈감에 부응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카믈로들 중에서도 프티부르주아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27년부터 가톨릭과 성직자 회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단체 내에서도 지지자들의 변화는 이미 명백했지만, 지도부의 경직된 사고는 이를 반영하고 활용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시대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제자들의 시대였다. 악시옹 프랑세즈 역시 파시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했지만 그 관계는 사뭇 달랐다. 통합적 민족주의는 파시즘보다 이전 세대의 산물로 앞서 30년대 극우파 세력들의 모태였다. 파시즘 논쟁은 현재진행형인 역사학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대표적인 불의 십자가단에 대한 논쟁[45]을 필두로 프랑스 파시즘에 대한 역사적 규명은 시작되었다. 악시옹 프랑세즈는 여기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웨버는 이미 30년도 전에 이러한

44)Petitfils, *La Droite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 91.
45)이에 대해서는 김용우, 『호모 파시스투스』, 제2부(프랑스 파시즘) 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46] 심지어 르네 레몽(René Rémond) 역시 통합적 민족주의의 제자들 대부분이 파시즘으로 빠져든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책임을 논한 바 있다.[47] 악시옹 프랑세즈의 책임론은 그들이 19세기 말 민족주의 동맹의 계승자로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아 1930년대 극우파 동맹들의 사상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굳어진다.[48] 두 번째 절정기에 대한 평가의 논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악시옹 프랑세즈가 발휘하는 영향력의 근원은 지적인 명성과 네트워크였다. 이 동맹 출신 청년 티에리 몰니에(Thierry Maulnier)는 "악시옹 프랑세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헤아릴 수 있는 세력 옆에 그 단체를 떠난 사람들로 구성된 또 다른 세력을 거느리고 있다."[49]고 말하였다. 책임론에 대한 시각에 따라 악시옹 프랑세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될 것이다.

비순응주의자들의 비판에 따르면 '인악시옹(Inaction) 프랑세즈'로 전락해버린 단체와 이데올로기가 어느 모로 보나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시정부로 귀결된 것은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모라스가 페탱원수에게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발견하고 '숭고한 놀라움(La divine surprise)'을 느끼며 '유일한 프랑스(La France seule)'를 통해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그들의 주적인 독일에의 협력과 병행되는 일이라는 점은 매우 놀라운 역설이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두 번째 절정기는 자신들이 고수하던 원칙을 저버린 대가성 결실이었다. 그들은 결국 보수주의적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했으며 무질서보다는 질서를 택하는 선택을 하였다. 두 번째 절정기가 긍정적인 평가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와 유사한 사고를 지니고 있던 보수주의 세력들의 결집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그들의 한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46) Weber, *L'Action Française*, p. 630. 프랑스판 역서 후기(Vingt Ans après)에 해당된다.

47) Rémond, *Les Droites en France*, p. 176.

48) 특히 프랑스 최초의 파시스트 단체인 페소를 창립한 발루아는 자신이 악시옹 프랑세즈에 속해 있을 때 활동한 프루동 서클을 가리켜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파시즘적 시도"라 회고한 바 있다. 김용우, 『호모 파시스투스』, 121쪽에서 재인용.

49) Pascal Ory, Jean-François Sirinelli, 한택수 역, 『지식인의 탄생 - 드레퓌스부터 현대까지』 (서울: 당대, 2005), 124쪽에서 재인용.

1930년대 비순응주의자들과 모라스주의자들을 고려해 그들을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두 번째 절정기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두 절정기 사이의 간극은 매우 짧고 가까웠다. 그렇지만 이를 둘러싼 정황은 확연히 그리고 빠르게 달라져 있었다. 양자의 간극을 메우는 그들의 온갖 모순과 역설들이 시대의 혼란상을 대변한다. 해방 이후 1945년 1월 24일 모라스는 론(Rhône) 법정에서 적과의 내통을 이유로 영구 구류 및 국적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모라스는 “이것은 드레퓌스의 복수다!”라고 응대하였다. 77세가 된 모라스의 사고는 5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 사건 속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 빠르게 변화해 버린 시대, 그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모순과 역설로 점철된 사고, 그것은 모라스로 대표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던 시대의 초상이었다.

Ⅴ. 맺음말

본 논문은 악시옹 프랑세즈의 긴 역사와 그 속에 담겨 있는 모순과 역설들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악시옹 프랑세즈라는 수적인 힘도 세력도 작은 단체가 긴 시간 동안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프랑스의 민족주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이론적 신선함에 힘입은 결과였다. 모라스의 통합적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은 아니었지만, 전혀 다른 사회 집단에 속해있는 반체제주의자들이 민족주의라는 이름의 깃발 아래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둘째, 악시옹 프랑세즈의 지적 명성과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반영구적인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 선출된 단체의 수장 모라스의 문학적 명성은 물론 조직 지도부 대부분의 지적 명성은 조직을 지탱해 준 가장 큰 대들보였다. 셋째, 악시옹 프랑세즈는 견고한 이데올로기와 지적인 브랜드 네임을 토대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첫 번째 절정기 직후 전국왕당파연맹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청년이 단체를 탈퇴했고 상당수가 적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들이 악시옹 프랑세즈의 초기 정신을 향유했고, 모라스의 그늘 아래서 성장했으며, 그로부터 발전해 나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지속된 악시옹 프랑세즈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악시옹 프랑세즈에 한 때 속했었거나 그를 추종했던 모라스주의자들이 아직까지 지성계에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악시옹 프랑세즈가 20세기 초 프랑스 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근대 왕정주의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일 것이다.

악시옹 프랑세즈가 지닌 온갖 모순과 역설들은 어떠한가? 교황에게 파문당한 가톨릭의 투사, 왕에게 부인당한 왕정주의 단체, 애국주의와 반독일주의 속에 탄생해 내내 그 선봉장이었지만 대독협력으로 끝을 맺은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과 상반되는 열광적이고 맹신적인 성향의 지지자들. 또 하나를 추가해보자면 공화국의 편에 서고 공화주의와 영광을 함께한 반동단체라는 감투도 가능하다. 역설적이지만 태생에서부터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산물이었던 단체. 그들의 사상은 반공화주의에서 출발했고, 공화국의 출발점인 프랑스대혁명에 대한 부인이 그 핵심이다. 그들의 전략과 활동 역시 그 수단과 방법은 공화주의에서 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작은 동맹은 공화국 체제의 안정화를 통해 자유로운 풍토의 대중정치가 본격화되고, 공화국의 대중언론 정책을 통해 언론인들과 지식인 계층이 직업적으로 등장했으며, 대중적인 정치참여 시대가 문을 연 19세기 말의 그림 속에서 탄생하였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가 반체제주의자들의 발발을 촉구했고, 악시옹 프랑세즈와 같은 반동단체를 싹 틔웠다.

이 모든 역설들은 악시옹 프랑세즈의 초기와 후기 간의 간극을 보여준다. 그들의 첫 번째 절정기를 이끈 지적인 활력과 열정은 가톨릭과 왕당파를 한시적으로 포용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일으켰으나 그것을 지속시키지는 못하였다. 단체 지도부는 양 집단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상생의 활로를 찾아 쇄신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시대적 정황 변화에 적응 못하고 오히려 보수화┌경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절정기에 이르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대독협력에 가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감성과 열정은 극도로 방어적인 이론 속에 갇혔다. 이를 진정한 절정기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단체에 대한 평가에는 언제나 그들로부터 배태된 모라스주의자들과 비순응주의자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아가 파시즘 논쟁과도 연관된다. 혁명과 반동의 나라 프랑스에서 20세기 반동주의의 대표적인 단체인 악시옹 프랑세즈는 과연 혁명(여기서의 의미는 파시즘)의 방어제로 작용하였는가? 아니면 이들 혁명 세력의 모태 그 자체로서 평가해야 하는가?[50]

악시옹 프랑세즈의 초기 역사는 우리에게 19세기 말 프랑스의 정치문화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프랑스인들의 불안과 공포를 비추어 준다. 이는 벨에포크 시대 세기 말 데카당스에 침몰되어 있던 프랑스인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후기 역사는 초기 역사의 뒤틀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모순과 역설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에는 정치적 분파도 이데올로기도 불분명한 많은 이들이 뒤섞여 독일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그들에게 협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가담해 활동하던 악시옹 프랑세즈가 지닌 모순과 역설은 두 시대를 잇는 어긋난 징검다리로 상징된다고 할 수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 연구원, minheekim@sookmyung.ac.kr

---

50) 1970년대부터 로버트 팩스턴(Rober Paxton)과 제브 스테른헬(Zeev Sternhell)과 같은 외국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프랑스 파시즘 논쟁은 이른바 '스테른헬 논쟁' 이후 본격화되다 최근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2014년 스테른헬의 회고록이 출간되며 다시 불거지고 있다. 스테른헬은 프랑스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계보를 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탐색하고 있는데, 모라스의 사상에 끼친 바레스의 영향과 후대 파시스트 활동가들에게 끼친 모라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악시옹 프랑세즈 역시 이 논쟁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듯 하다. 프랑스 파시즘 연구의 최근 동향은 김용우, 「파시즘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프랑스 파시즘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프랑스사연구』, 32(2015)를 참고.
프랑스 파시즘 논쟁과 더불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중 우파 정당인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최근 행보 역시 주목할 만하다. 민족전선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 체제 이후 '탈악마화(dédiabolisation)' 정책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러한 사상과 전략의 변동에 대한 의미 분석은 다음 두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용우, 「모리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과 포스트-파시즘」, 『Homo Migrans』, 18(2018)과 하상복, 「프랑스 민족전선과 잔 다르크(Jeanne d'Arc)의 상징정치 - 장 마리 르펜에서 마린 르펜으로」, 『문화와 정치』, 제5권 제1호(2018). 잔 다르크 축제는 악시옹 프랑세즈가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우파의 정치 이미지 운동으로 민족전선이 이를 폐지하는 상징적인 결단과 새로운 사상적 모색 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와 전략을 수혈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Key words):
악시옹 프랑세즈(*L'Action Française*), 프랑스 민족주의(Nationalism in France), 프랑스 우파(Right-wing in France), 샤를르 모라스(Charles Maurras)

(투고일: 2019. 04. 14, 심사일: 2019. 05. 03, 게재확정일: 2019. 05. 07)

<국문초록>

20세기 프랑스 우파의 정치문화 고찰
- 악시옹 프랑세즈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

김 민 희

악시옹 프랑세즈(L'Action Française)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민족주의 단체로 반 백년의 긴 역사 동안 존속하며 프랑스 우파의 정치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는 악시옹 프랑세즈라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그들의 두 절정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두 절정기의 성격과 시대적 맥락을 분석하여 그들이 당대에 형성한 영향력을 가늠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 프랑스 우파의 정치문화 깊숙이에 잔존하는 악시옹 프랑세즈의 흔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악시옹 프랑세즈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성장하여 1930년대를 풍미한 비순응주의자들(Non-conformistes) 및 모라스주의자들, 단체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력과 책임을 어떻게 가르고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는 더 나아가 프랑스 파시즘 논쟁과 맞닿는다. 보수주의로 회귀하였으나 혁명 세력을 배태시킨 악시옹 프랑세즈는 과연 혁명(여기서의 의미는 파시즘)의 방어제로 작용했는가? 아니면 이들 혁명 세력의 모태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가? 본고는 이에 대한 고민과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Culture of French Right in the 20th Century
-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L'Action Française* -

Kim, Minhee

L'Action Française was a representative national right-wing group in France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t has a long history of over half a century and greatly influenced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French righ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group's two climaxes and examines it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First, I analyze the features of the two climaxes within the context of the times and measure their influence in the present day. I also consider what the present-day signs of *L'Action Française* that still remain in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French right mean. How can the influ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non-conformistes* and *maurassists* who grew up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L'Action Française* and who were dominant in the 1930s be evaluated? This problem is further confronted with the French fascist debate. Can it be judged that *L'Action Française*, who has returned to conservatism but has created a revolutionary forces, played a role in defending the revolution(i.e., fascism)? Or should it be considered the mother of these revolutionary forces?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is problem and considers these questions.

참 고 문 헌

1. 자료

L'Action Française, quotidien.
L'Étudiant Français, mensuel.
Maurras, Charles, *La Démocratie Religieuse*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1).
_____, *L'Enquête sur la Monarchie, Suivie de une Campagne Royaliste au 'Figaro', et Si le Coup de Force Est Possible*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5).

2. 단행본

김용우, 『호모 파시스투스』 (서울: 책세상, 2005).
Charle, Christophe, *Le Siècle de la Presse, 1830-1939* (Paris: Seuil, 2004).
D'Appollonia, A. Chebel, *L'Extrême Droite en France, de Maurras à Le Pen*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6).
Dard, Olivier・Leymarie, Michel・McWilliam, Neil, eds., *Le Maurrassisme et la Culture* (Villeneuve 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2010).
Huguenin, François, *L'Action française, Une Histoire Intellectuelle* (Paris: Perrin, 2011).
Jenkins, Brian, *Nationalism in France: Class and Nation since 1789* (London: Routledge, 1990), 김인중・마은지 역, 『프랑스 민족주의 : 1789년 이후의 계급과 민족』 (파주: 나남, 2011).
Leymarie, Michel 「 Prévotat, Jacques, eds., *L'Action Française, Culture, Société, Politique* (Villeneuve 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2008).
Loubet del Bayle, Jean-Louis, *Les Non-conformistes des Années 30: Une Tentative de Renouvellement de la Pensée Politique*

Français (Paris: Seuil, 2001).

Ory, Pascal ┌ Sirinelli, Jean-François, *Les Intellectuels en France, de l'Affaire Dreyfus à Nos Jours* (Paris: Armand Colin Editeur, 1996), 한택수 역, 『지식인의 탄생 - 드레퓌스부터 현대까지』 (서울: 당대, 2005).

Petit, Hugues, *L'Église, le Sillon et l'Action Française* (Paris: Nouvelles Éditions Latines, 1998).

Petitfils, Jean-Christian, *La Droite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3).

Prévotat, Jacques, *L'Action Françai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4).

_____, *Les Catholiques et l'Action Française, Histoire d'une Condamnation, 1899-1939*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2001).

Rémond, René, *Les Droites en France* (Paris: Aubier, 1982).

Schor, Ralph, *L'Opinion Française et les Étrangers en France*. 1919-1939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85).

Sirinelli, Jean-François, dir., *Histoire des Droites en France*: Cultures, tome Ⅱ (Paris: Gallimard, 1992).

Sutton, Michael, *Nationalsm, Positivism and Catholicism: The Politics of Charles Maurras and French Cathol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Touchard, Jean · Guiral, Pierre · Kayser, Jacques · Rémond, René, "L'Esprit des Annees 1930: Une Tentative de Renouvellement de la Pensée Politique Française", *Tendances Politiques de la Vie Française depuis 1789* (Paris: Hachette, 1960).

Weber, Eugen, *L'Action Française: Royalism and Reaction in Twentieth-century Fr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Traduit de l'anglais par Michel Chrestien, *L'Action Française*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85).

Winock, Michel, dir., *Histoire de l'**Extrême** Droite en France* (Paris: Seuil, 1993).

_____, *Le Siècle des Intellectuels* (Paris: Seuil, 1997 & 1999), 우무상 역, 『지식인의 세기 1, 2』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8).
_____, *Nationalism, Antisémitisme et Fascisme en France* (Paris: Seuil, 2004).

3. 논문

김용우, 「모리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시즘과 포스트-파시즘」, 『Homo Migrans』, 18(2018).
_____, 「샤를르 모라스의 군주제적 민족주의와 프랑스 민족사회주의의 대두」, 『대구사학』, 86집(2007).
_____, 「파시즘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프랑스 파시즘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프랑스사연구』, 32(2015).
마은지, 「프랑스 민족주의」, 『숭실사학』, 제20집(2007).
하상복, 「프랑스 민족전선과 잔 다르크(Jeanne d'Arc)의 상징정치 - 장 마리 르펜에서 마린 르펜으로」, 『문화와 정치』, 제5권 제1호(2018).
Joly, Laurent, "Les Débuts de l'Action Française(1899-1914) ou l'Élaboration d'un Nationalisme Antisémite", *Revue Historique*, n° 639(2006).
Nora, Pierre, "Les Deux Apogées de l'Action Française", *Annales. É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19e année, n° 1(1964).